

“올 여름 함평서 ‘뮤캉스·북캉스’ 즐기세요~”

군립미술관, 기획전시 중...인근 카페서 차 한 잔 여유도 군립도서관은 독서 외 잔디·놀이터 있어 가족 단위 호응

함평군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뮤캉스’(뮤지엄+바캉스)와 ‘북캉스’(책+바캉스)를 준비해 관광객 유입에 나섰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기획전으로 ‘풍경과 감정이입’을 개최한다. 노은영, 박동근, 박인선, 윤준영 등 4명의 작가가 자연과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시는 평소 성실한 작업 태도와 높은 완성도로 주목 받아온 인기 작가들의 최신 작품들까지 감상할 수 있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미술관 외관은 양 날개를 펼쳐 날아가고 있는 나비 형상으로, 지상 2층 규모에 총 3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으며 건물 양쪽에는 수장고와 자료실, 학예 연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특별전과 기획전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주요 소장품은 함평 출신 오당 안동숙 작품 170점과 미술품 수집가인 기산 안종일 선생의 기증작 135점, 안송 이태길 작품 51점, 백열 김명태 작품 48점 등 총 402점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야외 공원은 오당 안동숙 화백이 평생 수집한 희귀 수석과 괴석으로 조성된 수석공원이 마련돼 있다.



함평군이 뮤캉스와 북캉스를 준비해 관광객 유입에 나선다. 사진은 함평군립미술관이 위치한 함평엑스포공원 전경. <함평군 제공>

군립미술관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미술

관 옆 카페 ‘풍경’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엑스포공원의 꽃과 나무, 푸른 녹지를

한눈에 담아도 좋겠다. 그런가 하면, 엑스포공원 건너편 화

양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함평군립도서관은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함평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강의실, 보존서고실, 정보검색실, 함평군 평생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총 3만3천647권의 도서와 전자책, DVD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 중이다.

특히 도서관 야외에는 잔디밭, 야외 의자, 놀이터 등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연 속에 위치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함평군립도서관은 하절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자료실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상의 군수는 “무더운 여름, 전시를 관람하고 독서도 하며 함평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김영수기자

해남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눈길’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등 44개 추진 2천382명 참여...올해 ‘김 종패 제작’ 운영

해남군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문 직종의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면서 일자리는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사업단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반찬 사업단으로 미남반찬 사업단(사진)은 지난해 2호점까지 개설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내 농수산물

을 이용한 건강한 재료에 어르신들의 손맛이 더해져 집 반찬과 다를 바 없는 정성이 인기의 비결이다.

또한 해남의 특산물인 김을 이용한 미남반찬 사업단은 일반 가정에서 만들기 어려운 스낵형 반찬을 전문으로 해 로컬푸드 등 지역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해남미소와 남도장터 등 온라인

몰까지 진출해 건강한 간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신규 시장형 사업으로 골매각재활용 김종패 제작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김 인공 재료를 위해 포자를 부착하는 종패를 제작하는 사업

으로 대표적인 김양식 산지인 화산면 관동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해남군 노인 일자리 사업은 14개 읍면과 민간수행기관 4개소에서 2천382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월 30시간 이내, 1

일 3시간 이내 활동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월 27만원에서 최대 50만4천원의 급여를 받는다.

군은 지난 2019년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 특색있고 호응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의 사회적 격리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미남반찬, 미남부각 등 시장형 사업을 비롯한 1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박필용기자



무안군,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기간 1주일 연장

정부 50%·지자체 40%까지 보험료 지원

무안군은 22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영농 안정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모내기 등으로 바쁜 농가들을 배려하기 위해 23일 판매 종료할 예정이던 벼 부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 등록증 등 농지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또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농

업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구매 시 사후관리기간 동안은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장오성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갑작스러운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 SNS 네이밍 공모

내달 4일까지...누구나 참여 가능

완도군은 “완도 해양치유” SNS 소통 계정 네이밍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완도 해양치유’에 대해 참신하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SNS 소통 계정명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군은 지난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후 다양한 해양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중점 시설이 되는 해양치유센터는 오는 9월 공식 개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맞춰 SNS 소통 계정을 신규 개설해 소

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대표성, 창의성, 친화성 3개 분야를 평가해 당선작 1명(상금 50만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가작 2명(상금 20만원·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 입선 7명(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 할인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wandomhc@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 061-550-5687) /완도=윤보현기자

전남서부건설안전협의체 “안전문화 확산·정착 앞장”

결의문 채택·캠페인 전개 위한 정기회의 개최

전남서부건설안전협의체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22일 전남서부건설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캠페인 전개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정기회의에서는 양성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설명했고,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의 하반기 릴레이 캠페인 전개, 전남 서부 건설현장의 안전 및 회원사 동향,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협의체는 매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목포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논의 및 산업안

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 준수 사항에 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의 주축인 안전문화 의식수준 향상과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2월23일 목포시 유달산에서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안전문화 확산

발대식’을 가졌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정범우 전남서부건설안전협의체 회장은 “안전을 위한 준비는 일상에서의 습관”이라며 “회원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의 주축인 안전 문화 의식수준 향상과 성숙한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기자



영암군, 정수시설 위생 관리 점검 실시

오는 26-30일 4곳 대상...유충 유입 차단 등

영암군은 22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26-30일 5일간 4개 정수시설의 유충 유입 차단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정수시설 내 유충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충 차단시설과 정수 공정 점검, 시설 안팎 청결작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영암군은 유충 유입 차단을 위

해 정수장 4개소의 개방형 여과지 시설을 밀폐구조물로 변경한 바 있다.

시설 내 유충 차단망과 감시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정수지와 배수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돗물 생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설 개선 등을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신안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재개

4천만원 들여 1가정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신안군은 22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3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신안군 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가정 22명의 부부와 18세 미만 자녀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정나들이를 위한 항공권을 배부하고 일정과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사진)

군은 올해 4천만원을 들여 1가정당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을 포함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중 친정나들이 기지원 여부, 다자녀, 국적 취득, 교육 참여도 등을 고려해 11가정(베트남 7가정·캄보디아 3가정, 중국 1가정)

을 선발했다.

박우량 군수는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온 결혼 이주여성의 친정 방문을 축하하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엄마의 나라 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내년에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지원 소개 결혼 성사 실적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시 한국어반 운영, 취·창업 교육, 온라인 국적 취득 교육, 찾아가는 자녀 생활 교육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언어 소통과 자녀 양육, 한국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안=양홍기자

